

■광주일보·시립미술관 '인문학강좌II'

# “놀이의 표현 ‘축제’보다 ‘마당’ 적절 전통놀이에 담긴 뜻 바로알고 써야”



부산대 채희완 교수 '짓, 판, 거리, 마당, 굿, 놀음'

동 주최한 '인문학강좌II'가 열린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강사로 나온 채 교수는 '짓, 판, 거리, 마당, 굿, 놀음'이라는 우리말에 담긴 깊은 뜻을 먼저 소개했다.

“제(祭)는 일부 대표성을 지닌 소수가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 강해요. 하지만 우리의 마당굿과 전통놀이는 마을 주민 모두가 신분을 떠나 어우러진 행사였기에 '제'라는 단어보다는 '굿'에 가깝습니다.”

모든 문화적 행사에는 기원하는 '제'(祭)의 의미가 담겨있지만 우리의 놀이는 삶 그 자체였다. 여기에 대해 채 교수는 탈춤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탈춤 굿기가 없다. 하인이 양반의 뺨을 때리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유교 사회 조선에서는 허용되기 힘든 장면들이 자주 연출되면서 생활 속의 울분을 달래줬다.

“탈춤은 사회적 금기를 뒤집는 것입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넘나들며 한 판 어우러져 놀다가 판이 끝나면, 다시 삶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 우리의 탈춤이고 마당극이며 놀이였어요.”

삶과 놀이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몸처럼 움직인 전통 놀이의 특성은 창녕군 영산면 '쇠머리대기'와 '줄쟁기' (중요무형문화재 제25호), 광주 칠석동 고싸움놀이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를 보면 더

욱 뚜렷해진다. 일종의 고싸움인 '쇠머리대기'는 영산의 영축산과 함박산의 기운을 하나로 모아 더욱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는 놀이였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공간의 모습에서 놀이가 생겨난 셈이다.

“우리가 줄다리기로 표현하는 '줄쟁기'에는 우리 민족의 놀이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줄쟁기'는 뒤로 물러서야만 이길 수 있어요. 적을 껴안고, 자기가 뒤로 물러나야만 이길 수 있는 이 경기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우리 민족의 특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행사가 끝나면 참석자 모두가 줄을 조금씩 잘라 집 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지붕에 올려놓는 등 '줄쟁기'는 투쟁과 대결이 아니라 화합과 화해의 놀이다.

“칠석동고싸움놀이도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고 남성과 여성, 양과 음이 어우러진 한 판 흥겨운 놀이판입니다. 우리의 전통놀이에 담긴 소중한 뜻을 바로 알고 계승해야 합니다.”

서울대 미학과를 나온 채 교수는 민족 미학연구소 소장, 창작탈춤 지기금지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탈춤의 사상' '한국춤의 정신은 무엇인가' 등의 책을 썼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7일 채희완 교수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우리 전통놀이에 담긴 뜻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첼로와 피아노의 '따뜻한 대화'

김재준 귀국 독주회 21일 유·스퀘어문화관

첼리스트 김재준 귀국 독주회가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김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베토벤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5번', 카사도의 '사랑의 속삭임', 브람스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을 들려준다. 초등학교 시절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김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를 거쳐 음악원 과정을 수석졸업했다. 이후 라이프치히 국립

립음대 석사 과정과 실내악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귀국 후 메타필로스첼리스트, 칸플루언스 앙상블 단원 등으로 활동중이며 배재대, 계원예술대 영재교육원에 출강하고 있다. 피아노 반주는 이유정씨. 이번 연주회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금호아트홀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전석 1만원.문의 1544-1555.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화폭 가득 신비의 동물 '유니콘'

강일호 개인전 22일까지 금호갤러리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상상속의 동물 유니콘이다. 푸른빛, 회색빛, 갈색빛의 유니콘들은 나신(裸身), 절벽, 회전목마 등 다양한 소재들과 어우러지면서 환상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원초적인 색감은 때론 몽환적이고, 화려함도 담고 있다. 강일호 개인전 '판도라의 상자'가 오는 22일까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강씨의 8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는 금호갤러리 영아티스트 창작지원전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니콘을 소재로 한 '판도라의 상자' 연작 이외에도, 독특한 색감으로 대상을 유쾌하게 표현한 '광대', '돈키호테' 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나온 강씨는 광주시 미술대전 대상, 허백련미술상 특별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예맥회, 전통과 형상화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360-843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판도라의 상자 9'

## '함께가요 의재쌤' 결과 전시회

19일까지 무등산 관공대 일원

교육문화공동체 '결과' 의재미술관이 진행해온 '함께가요, 의재쌤!' 결과 전시회가 오는 19일까지 무등산 관공대 일원에서 열린다. 2011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을 받아 매주 주말마다 진행된 '함께가요, 의재쌤!'은 한국화의 대가인 허백련 선생의 유적지를 함께 걸으며 문화공간에서 남도 문화의 의미를 체득해 가는 프로그램. 150여명의 참가자들은 의재미술관 관람, 다례 이야기 나누기, 의재문화유적지 답사, 수묵화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세상을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관공대는 의재 선생이 친구·제자들과 춘설차를 마시며 세상이야기를 나눴던 장소로 이번 전시에서는 프로그램 활동 사진과 청소년 작품 등 100여점이 전시되며 춘설차 시음 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문의 070-8254-131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멘델스존의 '엘리아' 만나는 시간

광주시립합창단 연주회 19일 광주문예회관

멘델스존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함께 3대 오라토리로 꼽히는 멘델스존의 '엘리아'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연주회가 열린다.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은 오는 19일 오후 6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엘리아'를 공연한다. 38세에 요절한 멘델스존이 마지막으로 작곡한 '엘리아'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과 유대 바알신의 대립, 예언자 엘리아의 승천을 다룬 작품으로 낭만주의 시대 최대 걸작으로 꼽힌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서곡을 포함 '도우소서 주여' 등 1부 20곡, '들으라 이스라엘' 등 2부 22곡 전곡을 연주한다. 고전적 오라토리로 꼽히는 하이든의 '천지창조'에 비해 '엘리아'는 베르디의 오페



구천 이미성

라 못지 않은 극적효과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받는 곡이기도 하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국립합창단과 서울 오라토리오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며 소프라노 이미성, 알토 최미란, 테너 변진환, 바리톤 김대수씨가 솔리스트로 참여해 무대를 빛낸다. 티켓 가격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613-824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30년 전통 광주대표 맛집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2011년을 보내는 의미있는 자리를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송년·신년모임 예약 접수중
●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 3인이상)  
A코스 38,000원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기본 3인이상)  
오찬정식 15,000원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 노사연 Dinner Show

## 2011 Winter Special ₩165,000원 (VAT 포함)

신양파크 호텔 1층 그랜드 블룸 2011. 12. 15(목) 19:00

19:00  
입장 및 식사

20:00  
디너쇼

21:40  
퇴장 (롤케익 증정)

예약 및 문의 : 062)228-4711~2 대표전화 : 062)228-8000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